

[2018년, 24회 합격] 법무사단기 김*준 법무사님

1 차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최종 평균점수는 72점				
2 차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51.5	68	71.75	54.875

[주제1] 수험기간

저는 만 27세 낮은 나이에 군대를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 법대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시준비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미련이 남아 그 해 3월부터 8월까지 법원행시를 준비하였고 독학의 한계에 부딪혀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차 시험의 탈락을 확인한 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들어 신림동 고시촌을 도망치듯 나왔고 약 두달간의 고민 끝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무사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법원행시 내지 로스쿨로 가는 하나의 발판으로 생각하였으나 상담을 통해 깨닫게 된 건 법무사 시험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차 8과목, 2차 7과목의 방대한 과목수와 양,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전반에 걸쳐 실무적 역량을 요하는 과목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 등은 그동안 수험생으로만 지내왔던 제게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제 스스로 겪으며 확인해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학원을 다니며 상담을 했고, 가장 친절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은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그 당시 진정성 있게 상담 해주신 오제현 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결과를 확인하고 약 한달간의 고민기간을 가진 후 법무사 수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2016년 11월에야 민사집행법 1순환 수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무사 시험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7개월간 준비하여 2017년 6월 1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해 9월 동차 시험을 지나 2018년 9월 기득권 수험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총 수험기간은 약 1년 10개월 정도가 됩니다. 수험가에서 보통 법무사시험의 수험기간을 3~4년 정도를 평균으로 잡기 때문에 제 수험기간은 짧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매년 생동차 수험생이 한 두명씩 나오는 점, 저와 같은 첫 기득권 수험생들도 매년 다수자가 나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수험전략만 잘 세울 수 있다면 충분히 단기합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법대를 나왔고 다른 수험공부를 어느정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올바르게 않은 독학의 한계를 경험해 본 입장에서 (특히나 법무사시험의 특성상)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과 그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수험생활을 하며 느낀 점 및 실패했던 경험, 성공적이었던 전략들을 공유해 부족한 글을 봐 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2] 나만의 학습방법

1. 학습계획의 수립

모두가 알고 말하듯이 수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때의 싸움에는 외로움에 관한 것도 있고, 자존감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 저는 후자인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수험기간 내내 저를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수험생이라면 모두 가질 스스로에 대한 실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덜 깎아먹으면서) 수험공부에 대한 동력을 유지할지가 제겐 큰 관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해결책으로 저는 매일 매일 조금씩 성취를 느끼는 방향으로 공부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강의는 반드시 들었으며, 하루에 정해놓은 양의 공부를 반드시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욕심을 부려 양을 늘리지 않는 것이었고, 하루 중 내가 반드시 써야 하는 시간들을 (예컨대 식사, 화장실, 중요한 약속등) 침범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특정하여 시간 계획을 짰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들은 최대한 제거하되, 반드시 필요한 생활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그러면서 매일 목표표로 삼은 공부량을 유지하는 것. 이 세가지가 제 수험 생활의 가장 큰 줄기였습니다. 이렇게 수험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면 한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계획을 세워놓은 과목 이외의 과목 한가지를 더 선택하여 집에 가기 전 딱 20분씩만 꾸준히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어느샌가 따로 시간 내지 않고도 한 과목을 1회독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걸 공부의 효율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스터디의 활용

1차 시험은 뒤늦게 들어온 탓에 스터디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너무나 부족해, 오히려 스터디를 하면서 더 좌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터디가 반드시 최고의 방법은 아니며 특히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도있는 스터디에 참가한다면 외려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공부에 매몰된다든지 하여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스터디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침 출석 스터디, 판례 돌아가면서 읽기 스터디와 같은 단순하고 각자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스터디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스터디는 잘 활용하면 매우 도움이 되지만, 자칫하면 수험기간 내내 자신을 괴롭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차 기득권부터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동차시험의 다음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에 스터디원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력보다는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스터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3명의 스터디원과 함께 10월부터 3월까지 2차 시험의 모의문제를 정하여 (각 년도별 기출 및 모의고사, 주요판례등) 답안을 작성해보는 스터디를 매일 1시간씩 하였고, 3월 이후로는 각자 공부하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궁금증등은 잠깐씩 시간을 내 함께 토론했었습니다.

처음 2차 답안지를 쓸 때는 쓰는 방식도 몰라서 어디서 줄을 띄워야 할지 어떻게 들여써야 할지 부터 헤맸지만, 남들보다 앞서 답안을 쓰는 스터디를 한 덕에 다른 수험생들보다 빨리 답안지 쓰는 법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3월부터 답안 쓰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암기와 이해에 집중해야할 시기를 다른 부분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스터디 뿐만 아니라 많은 실력 있으신 수험생들이 판례 따라쓰기, 모범답안 따라쓰기등의 “쓰는 공부”를 따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렇게 착실하게 쌓인 판례의 어투, 좋은 실무적인 표현들이 모여 실제 시험장에서도 자연스레 녹여낸다면 채점관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앞둔 막바지즈음 실제로 송무에 쓰인 서류들을 참고하여 어떻게 하면 더 실무적인 표현과 방식들로 기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했었습니다.

3. 노트 및 자료등의 활용과 공부 방법론에 관하여.

(1) 경험

공부를 착실히 진행하다보면 방대한 양의 노트와 프린트자료가 생깁니다. 이 자료들을 착실히 정리하여 자신의 공부에 녹여내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양에 치여 결국엔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저 역시 수험초기에 노트필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이었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 필기된 내용을 다시 더 압축해서 정리하고, 압축본들을 과목별로 모아 다시 정리하는 방식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필기를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공부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필기와 정리에 매몰되어 정작 정리 해놓은 자료를 보지도 못한 채 마지막까지도 민법 정리를 하다가 1차 시험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따로 정리한 헌법 요약프린트 6장을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공유했는데 모두들 그 프린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좋아하며 고득점을 받았지만, 저는 정작 그걸 보지 않아서 기대했던 점수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기득권 수험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공부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최대한 정리를 하되,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는 정리된 자료의 양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불필요한 요약정리 시간을 줄이고, 노트보다는 기본서에

가필하는 방식으로 필기를 하였으며, 프린트등의 자료는 주로 “버스안에서 간단하게 들고 볼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게 필요한 부분만 간추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시험장까지 가져간 자료 (흔히들 무기라고 합니다.)는 과목별 기본서와, 간추린 모의고사를 묶은 프린트 한권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무기들은 이미 수험기간 내내 수차례의 회독을 반복한 상태였기에 1차 시험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 프린트등의 활용법

앞서 말씀드린 것에 연장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는 제 경험에 비추어 기본서를 중심으로한 공부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흔히들 1차 시험은 오직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을 2차 시험의 합격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매년 2차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가는 경향등에 비추었을 때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은 ‘성공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패를 줄이는 공부’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줄이기 위한 공부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노트와 프린트의 활용은 기본기를 다지는 것과 별도의 추가적 공부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대한 공부양에 지치거나 내지는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하면서 기본서가 아닌 요약 프린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는 단기간에 효율을 내긴 좋으나 그만큼 휘발성이 강하고 또 암기된 내용 이외의 파트가 출제될 경우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인 1차 시험에서는 프린트 중심의 공부로도 어느정도 성취를 얻을 수도 있으나, 결국 2차 논술형 시험을 앞두고는 공부의 양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프린트와 노트는 내가 공부하는 장소 이외의 상황에서 (가령 이동하는 버스, 지하철, 카페 등등)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여러번 회독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자료는 많아집니다. 그러니 최대한 빠르게 여러번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그 자리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프린트등의 자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공부방법론에 관하여

이번 제 24회 법무사시험의 합격생은 모두 121명입니다. 이 얘기는 즉 121가지의 공부방법론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저 역시 수험생 시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수없이 방법을 바꿔보았고, 각 시험별 모든 합격수기들을 찾아봤었습니다.

제가 공부방법론에 대한 꼭지를 따로 마련하여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방법론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다 보면 결국 그 방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 새로운 방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정작 공부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방법론만 익히다 수험생활이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의 시작은 정독입니다. 일단 지긋한 정독을 2-3회는 하면서 천천히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민법을 잘하고 싶어서 노트필기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필기를 잘하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펜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어떤 펜도 성에 차지않아 결국 펜 여러개를 사서 분해하여 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은 며칠도 채 못쓰고 맘에 들지 않아서 독서실 구석에 던져놨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자면 공부에 있어 유효적절한 방법론의 기준은 딱 두가지 인 것 같습니다. 첫째, 내 스스로 공부가 잘되는 방법인가. 둘째, 나보다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지금의 공부방법은 좋은 방법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큰 줄기를 제외한 세세한 부분 (가령, 색깔별로 펜을 쓴다거나/ 자를 대고 선을 긋는다거나/ 노트를 색깔별로 분류한다거나) 하는 수많은 방법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4. 시기별 학습과정

이는 이하 과목별 학습과정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1. 1차 시험의 준비

법무사시험의 특성상 그 방대한 양은 도저히 독학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등록하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수업은 민사집행법 1순환이었으며, 이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후 1차 공부를 따라가기 위한 제 과정을 적어보겠습니다.

(1) 제1과목 (헌법/상법)

헌법은 제게는 조금 익숙한 과목이었습니다. 기본권파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총설 및 통치구조 파트는 단순암기를 요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므로 제겐 취약한 부분중에 하나였습니다. 헌법은 40점 배점에 총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저는 15 문제를 목표로 잡았고, 기본권 파트의 판례는 사건을 이해하며 암기하되 단순암기가 필요한 파트의 내용들은 별도로 공부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 부분의 OX문제만 따로 모아 짜투리시간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본권파트만 다 맞으면 12문제 이상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단순암기는 지긋이 길게하는 공부보다 최대한 짧은 텀으로 반복하는 공부가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렵 내용정리에 매몰되어 결국 제대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험장에서 약 12문제 정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법은 너무나 생소한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스스로 숫자에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공부가 내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은 상법을 방어과목으로 삼아 60점 배점 총 30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양을 늘리지 않고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담감을 줄이고 접근한 덕에 회독수를 늘릴 수 있었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약 20문제 이상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로이 수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취약하다 생각하시는 과목은 방어과목으로 삼아 부담감을 줄이고, **'적어도 틀리지 말아야 할 것은 틀리지 말자.'**는 계획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2과목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민법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면서도 참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수많은 판례와 법리를 알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시험의 특성상 민사법 과목들은 결코 난이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려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민법은 80점 배점에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당시에 저는 민법을 전략과목으로 삼아 35문제 이상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국 시험에서는 약 30문제 정도를 맞았었습니다.

민법은 2차에서도 주요과목이므로 1차 공부를 하면서부터 면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례를 나열하듯이 공부하는 것은 1차 시험을 위한 암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논리와 법리를 다루는 2차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있는 2차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야 제가 알게된 것은 민법 공부는 주장과 항변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인 형태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교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판례들은 어떠한 분쟁에 있어서 그 다툼의 대상(소송물)이 된 주장과 그것에 대한 방어인 항변이 대립 되었을 때 각 **주장과 항변의 요건들중 어느 하나가 쟁점화 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판례들입니다.** 이러한 분쟁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각 판례들을 보신다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판례를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1차 뿐만 아니라 2차 시험을 위한 민법공부의 바른길이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20점 배점의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족관계등록법(20점) 과 상업등기법(30점)은 공부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만을 따라갔고, 기출문제 위주로 준비했으며 이 역시 상법과 비슷하게 방어과목으로 삼았었습니다. 목표는 3개였으나 다행히도 시험장에서는 5문제를 맞았었습니다. 예상치 않게 가족관계등록법이 점수가 잘 나오고 나서 느낀점은 어떤 과목도 (특히 배점이 낮은과목들) 소홀하게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의외로 가족관계등

록법은 공부시간 투자대비 효율이 좋은 과목이었고, 기대보다 2-3문제 더 맞은 덕에 민법에서 아쉬웠던 목표점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 만이라도 정확히 준비하여 2-3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면 의외의 좋은 점수를 받는 과목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제3과목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민사집행법은 총 70점 배점의 3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른 수험의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게도 민사집행법은 생소한 과목입니다. 민법적인 이해와 민사소송법적 이해가 어느정도 필요하며 절차법의 특성상 큰 구조를 이해하며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배점의 면에서, 생소함의 면에서, 1차 과목중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과목이었습니다. 단순암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판례위주로 나열해서 외우는 공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서의 목차를 따로 표로 만들고 각 목차에 해당하는 절차적 특징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목차부터가 생소했기에 목차를 외웠고, 각 판례들의 위치를 찾아 해당 판례가 어떤 법적의미를 가진 것인지(어떤 점이 쟁점이 된 것인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달정도를 남기고는 다시 큰 목차아래에 주요판례와 조문들을 간략한 단어로 정리하여 10장 내외의 프린트로 만들었고, 이동 중이나 식사 중에 틈틈이 들고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듯 민사집행법 역시 관련직 기출문제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사무관승진 시험은 저희 법무사시험과 아주 밀접하므로 최근 5개년 기출이상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시험장에 들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보았던 자료는 당해년도 사무관승진 기출이었고, 유사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다행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30문제를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업등기법은 총 30점 배점의 1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암기하여 절차를 이해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며, 상법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상법과 상업등기법을 한 과목처럼 운용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기에 면밀히 준비할 수 없었고,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다만 상업등기법은 한 문제라도 풀어내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4)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부동산등기법은 1차 시험(부동산등기법) 과 2차 시험(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 모두에서 역량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있어 다른 과목들은 모두 평균점수를 상회하나 등기법 때문에 합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다수 보았습니다.** 또 반면, 등기법에 굉장히 특화된 실력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주로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등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빠른 분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법무사 수험에 들어오기 전까지 등기 기록이라는 것을 한번도 본 경험이 없었기에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이제와 느끼지만 등기법의 공부는 다른 과목들과 달리 법리적 접근이 아닌 **실무적 접근**을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등기신청서 양식과 등기부 양식을 먼저 구하여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중간중간 갑지/을지/표제부/갑구/을구/등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 서면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등기법 공부에 있어 형식적인 면 과 실제적인 면을 구분할 수 있고, 선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은 1차 공부와 2차 공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차 공부가 충분히 되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2차 동차시험의 부동산등기법의 점수가 기득권시 점수보다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17년 동차 점수가 18년 기득권 점수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필요한 과목인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만큼은 공부비중을 높여서 최대한 전략과목으로 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1차시험 합격이 아닌 2차 최종합격이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부동산 등기법 총 60점 배점 30 문제중 20문제 가량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탁법은 공부시간 투자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정확하게 한번만 숙지하여 정

리해한다면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기도 한 효자 과목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수험생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탁법에서 실수가 생기면 다른 과목에서의 실수보다 더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각론 공부한 후, 다시 각론->총론으로 입체적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총 40점 배점 20문제이며 15개 이상을 목표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2. 2차 시험의 준비

(1) 동차기간

동차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종합격을, 생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을, 기득권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험장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처음 수험에 접어들었을 때 생동차를 목표로 하였었습니다. 다만 막상 수험생활을 시작해보니 1차 공부를 따라가기도 바빴고, 결국 제대로 된 2차 과목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짜 1월부터 3월까지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의 예비순환 강의를 들었으나 실제로 맞보기에 불과할 뿐 2차를 위한 공부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1차가 불안하여 2차 공부에 집중할 수 도 없었을 뿐더러, 이게 올바른 길인지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지금 와 돌이켜보면 삼시든 생동차든 동차시험의 합격은 충분히 노력하면 하다는 것입니다. 과목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 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 방향만 잘 잡는다면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차 공부를 동시에 준비하는 긴 과정은 쉽지 않으니 반드시 좋은 공부멘토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차 시험의 가채점 결과 합격을 기대할 수 있었고, 다음날부터 동차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서류과목은 보류해 둔 채 주요과목 위주로 준비하였으나 역시나 생소한 과목, 방식 등에 지레 겁을 먹고 늘 불안해하며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정신없이 약 3개월이 지나고 2017년 동차시험에서 제 평균점수는 43점, 제 2과목 형사법과 제 3과목 민사소송/서류에서 과락이 있었습니다.

(2) 기득권

동차시험을 경험하고 나서 곧장 스터디를 꾸렸습니다. 2차 시험의 기본이 되는 답안작성 요령부터가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 줄이고 이하 과목별 공부 전략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법의 공부 : 제 1과목 민법(100)/ 제 3과목 민사소송법(70)민사서류(30)

법무사 시험이 특징은 민사법의 전반을 수준높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민법, 민소, 부등법의 깊이 있는 공부를 요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의 중심이 되는 과목이 됩니다. 법리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판례와 모범답안을 단순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는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기본서 한권을 두고, 노트, 사례집, 각 순환별 모의고사, 변시/사시 기출문제집등을 무기로 삼아 시험장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본서 회독을 놓지 않았고, 꾸준히 회독수를 늘린 결과 마지막 시기에는 민법은 약 6시간정도, 민사소송법은 약 3시간 정도에 1회독이 가능했습니다.

판덱스 방식의 기본서이든, 판례위주의 기본서이든, 요건사실론 유형의 기본서이든 **자신에게 맞는 기본서 하나를 꼭 선택하여 반복회독 하는 것이 향후 추세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4회 시험에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기존의 관련시험에서조차 기출된 바 없는 쟁점이 50점 배점 문제로 나왔는데, 이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신의 기본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들의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결론이 틀린 경우라도 기본기에 따라 착실히 논리구성을 한 경우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민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그런 경우 **민사소송법을 우선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구조를 이해

하고 분쟁의 구조 안다면 민법 판례를 보다 입체적으로 심도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사서류(소장) 과목은 민사법의 총체와 같습니다. 각 유형별 청구취지를 암기하고 청구원인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의 지식으로 채워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의 적식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식을 갖추지 않은 답안은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으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적식을 갖추다면 기본점수 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사서류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적식만큼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꾸준히 작성해보면서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목과 동일합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을 꾸준히 따라갔고, 2순환 이후부터 수업은 취사선택하였으나 모의고사만큼은 반드시 작성하여 첨삭을 받았었습니다. 모의고사와 첨삭에 관련하여 후술하겠습니다.

2) 형사법의 공부 : 제 2과목 형법(50) 형사소송법(50)

형사법의 난이도는 다른 직렬시험에 비해 (변호사시험/경찰간부등)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은 법무사시험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양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경우 매년 불의타로 평가되는 문제가 20점 가량씩 출제되기에 어느 한 곳의 자료에 의지하는 것 보다는 **여러 곳의 다양한 자료를 두루 섭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 역시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대신 사례집의 비중도 기본서 만큼 높여 공부를 했습니다. 민사법과 비교하여 형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인 구조 보다 쟁점별/사건별로 **각 판례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형법의 경우, 총론에서 단문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간추렸고, 각론에서는 각 죄에 해당하는 판례들을 도식화 하여 암기하였습니다. 이번 24회 시험의 형법 문제는 약술형 문제에 가까웠는데요, 각 유사 판례들을 도식화하여 비교하며 공부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기본서와 사례집 및 모의고사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취득하여 빈곳을 채우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법무사 시험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다른 직렬에서 출제되지 않는 실무적인 쟁점들 역시 매년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3순환 무렵엔 여러 학원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어도 결론만큼은 틀리지 않는 것으로 공부방향을 잡는다면 의외의 고득점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3) 부동산등기법의 공부: 제 4과목 부동산등기(60) 등기신청서류(40)

부동산등기법은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단순암기를 하기엔 지나치게 양이 많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다보면 정작 답안지에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과목은 시험이 끝난 후에 그 공부방법에 대하여 더 고민하게 되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기본서와 예규집을 종합하여 저만의 약술형 프린트를 2월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4월쯤 약 30장의 프린트물이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까지 프린트와 조문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의고사에는 매년 참여했지만 저의 경우 모의고사를 작성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꼈던 건, 전날 단순히 암기하여 다음날 아침에 암기테스트 하는 느낌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시간은 다른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실제 시험장에서도 잘 작성하지 못하였고, 결국 좋은 점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논술형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을 단순히 목차를 외우고 문장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만약 1차 때처럼 **큰 쟁점을 가운데에 두고, 마인드맵형식으로 내용을 파생시켜가며 도식화 하는 자료**를 만들었다면 더 효율적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큰 구조를 바탕으로 두고서, 시작부터 논술에 지레 겁을 먹고 내용을 축소시키거나 하지 말고, 꾸준한 회독수 증가를 통해 바탕지식을 많이 쌓아두었다면 더 면밀한 답안 작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을 고득점한 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표로 작성하여 공부를 하거나, 도식화하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경우 조금만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목표는 기본 20점 이상으로 삼으시되, 첨부서류의 제공근거 작성에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신다면 30점

까지도 노력할만 한 과목입니다. 민사서류와 마찬가지로 등기신청서류의 공부에 소홀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시는데, **제 4과목을 과락에서 면하게 해주는 핵심은 등기신청서류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디 서류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과락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3. 과목별 목표점수의 설정과 모의고사 및 첨삭에 대하여

(1) 목표점수의 설정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과목별 목표점수를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긴 수험기간의 공부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 특히 취약한 과목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목표점수의 설정은 ①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찾고 (잘하고 싶은 과목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② 전년도 합격 커트보다 +10점 이상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1,2차 모두 총 4과목으로 구성되는 바, **2과목 이상의 전략과목(고득점을 목표)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1차 시험에서 헌법/민법/민사집행법/공탁법을 전략과목으로 삼았고, 나머지 과목은 방어과목으로 삼았습니다. 전략과목에는 각 배점별 80% 이상의 성취도를 내는 것으로, 방어과목에는 적어도 50%의 성취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최종 목표점수는 평균 75점이었으며 시험결과 평균 72점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목표했던 바에 모두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성적표를 받아 비교해보니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목표점수의 설정은 전략과목에 대한 것보다 방어과목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취약한 과목을 방어과목으로 삼게 되는데, 만약 목표점수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취약한 몇 과목에만 시험 막바지까지 몰두하다가 결국 잘하던 과목까지 점수가 하락해버리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제게 이 말은 다시말해 “포기할 건 포기하라” 과 다르지 않습니다.** 1등도 121등도 하나의 자격증이 나오는 건 동일하니까요.

2차 시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저는 제 2과목과 제 3과목을 전략과목으로, 제 1과목은 중간, 제 4과목은 방어과목으로 삼았습니다. 최종 목표는 70점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제 2과목과 제 3과목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아 제 1과목과 제 4과목에 부족한 점수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62점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점이 낮은 과목(가령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을 전략과목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략과목의 취지란, 고득점을 받아 다른 과목의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 위함인데 배점이 낮은 과목을 전략과목으로 삼는다면 그건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전략과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을 전략과목으로 삼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의 중심이 잡힌다면 민법과 민사서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2차 시험과 관련하여 모의고사 및 첨삭

모의고사에 반드시 참여하라. 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 시간을 두고 푸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작성만 하고 제출은 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다만, (역시나 반복하지만) 수험공부에서 중요한 건 **탈락의 위험을 줄이고,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일입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제시 시간에 참여하고 작성하여, 제출하고, 첨삭을 받는 것이 탈락의 위험성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지, 너무 잘 아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분량과 시간을 조절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본인이 작성한 모의고사가 첨삭될 때 기대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득권생활 동안 그런 불만이 많았던 사람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모의고사를 통해 받는 점수의 숫자가 아닌, **나 스스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후 저는 모의고사 답안지를 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잘 썼으니, 어디한번 구경해볼래?”. 결국 자신감을 위해서도 모의고사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공부진도와 수준은 결국 학원의 커리큘럼과 비례곡선을 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

라서 매 순환을 거쳐가며 모의고사를 치르며 스스로의 수준을 점검해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주제4] 드리고 싶은 말

1. 생활습관과 체력관리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무리한 웨이트트레이닝을 하신다면 수험생활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험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같은 편이라 시험이 가까워질 때까지 매일 2시간씩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운동을 통해 기분전환을 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면이었지만, 운동에 몰두하다가 공부시간을 많이 잃는 다거나 운동 중에 다친 허리 때문에 앉아있기 힘들었던 경험등을 떠올려 보면 조심해야 할 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으로는, 운동은 꾸준히 주 1~2회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운동보다도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것이니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 공부를 하면서도 살이 찌는 것을 피하고 싶어 저녁을 굶거나 간단한 과일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먹는 게 별로 없었음에도 이상하게 늘 배가 아파 고생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점심을 과식하고 저녁을 굶는 식사습관 탓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저녁을 챙겨먹게 되었고 오히려 배가 아프지 않아 저녁시간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경험에 비추어 반드시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적으로 좋았던 공부 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 명의 합격생에게 백 명의 공부방법이 있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공부의 방법만큼은 수험생 모두가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제 공부방식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았던 몇 가지 팁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노란색 펜의 활용. 저는 주로 샤프/검정색/빨간색 펜으로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책을 정리합니다. 책 정리를 할 때는 회독수 증가를 목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강약조절에 중점을 두는 편인데, 이때 노란색은 빨간색과 변별력을 두면서도 가시성이 좋은 색으로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2) 하루 10분 짜투리 활용. 하루 계획만큼의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 딱 10분씩 주요 과목의 기본서를 읽는 방법입니다. 앞서 공부의 자신감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적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민법과목의 기본서 정독에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2차 기득권 초반 유용하게 활용하여 회독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3) 선생님을 이용하는 방법. 학원 수강을 하시는 분들께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를 하면서 난해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따로 간단히 메모하는 메모장을 만들어 그때 그때 기록해두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가면서, 수강생들은 수업 쉬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반드시 선생님들과 접촉하여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

한 방법은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정확한 핵심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수기를 마치며 (수험기간동안의 마음가짐)

긴 수험의 레이스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우선 열렬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쌓여 결국 마지막 순간 뒤 돌아보았을 때 먼 곳까지 착실히 걸어온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재작년과 작년 이맘때쯤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과 막막함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했던 것이 결국 합격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기간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늘 되새겼던 몇 가지 말들을 공유하여 예비 법무사님들께서 앞으로의 여정을 이겨감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실패해도 괜찮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패를 겪음으로써 잠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에서의 몇 번의 실패는 결국 자신을 예전보다 강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면밀히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공부에서도 또한 실무에 나아감에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20대의 시간을 수험생활과 떨어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늘 고시에 대한 미련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결국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해 일을 병행하며 독학으로 준비했던 법원행시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제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 좋아하는 공부, 무엇이든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제 장점이 되어 수험생활을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완주의 경험을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 수험생활을 겪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 레이스에서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시험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하게 책을 부여잡던 그 마음, 그렇게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본 경험의 힘을 믿으라는 이 말 역시, 제게 있어 시험장에서 마지막까지 의지를 부여잡을 수 있었던 한 마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관념적이기도 한 이 말은 제가 기득권 시험을 준비하던 4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시절에 훌륭한 선배 법무사님께 들은 조언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공부가 아닌 외부적 이유로 어떤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위로해주는 말은 “괜찮다. 다 지나갈 것이다.” 또는 “그 아픔을 동력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라.” 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것은 분명하고,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이때, ‘힘든 나’를 조금은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는 ‘또다른 나’를 생각하시어 마음의 절반은 힘든 곳에 두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절반의 마음을 뿌리깊게 심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도 많이 상해야 했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아야 했지만 결국 저는 이 말을 마음에 품고 한 쪽으로는 계속 아파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묵묵하게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서 이제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길어짐을 알면서도 백 마디의 말 중에 한 단어라도 누군가가 얻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진심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아직 저는 이름 앞에 법무사 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색한 시기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의 저처럼 이렇게 어색한 명칭을 이름 앞에 붙이실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험기간 내내 한결같은 응원을 해주신 가족에게 감사로, 다시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불안한 걸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찬미와 기찬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최연소 합격 타이틀을 거머쥔 존경하는 동생 은상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진이누나, 원재형, 정운이에게는 내년에 함께 합격의 축하를 나누기로 약속하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형 같이 때로는 부모같이 응원해주고 함께 발을 맞춰주신 김정호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와 합격 동기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섭 선생님, 유안석 법무사님을 포함한 많은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좋은 수업으로 잘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인사를 남깁니다.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좋은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재권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